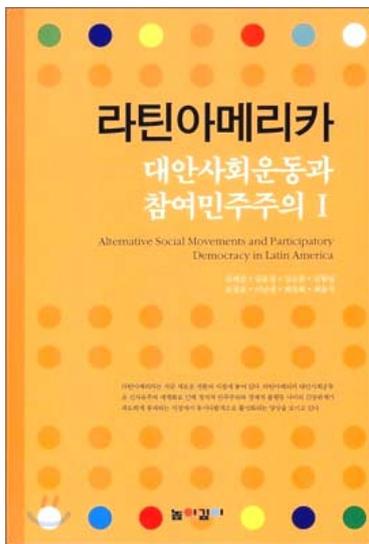




■ 라틴아메리카—대안사회운동과 참여 민주주의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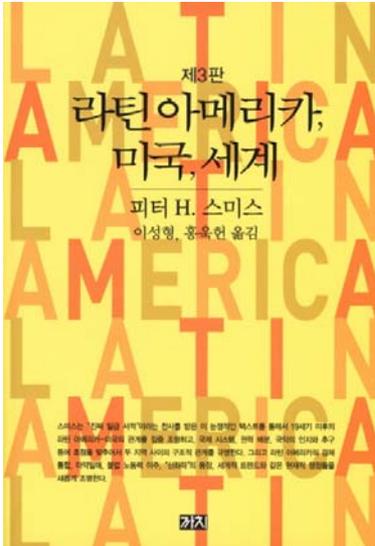


지은이: 김세건 (외)  
 출판사: 높이깊이  
 출간일: 2010-06-08  
 ISBN(13): 9788975882173  
 양장본 | 323쪽 | 153\*224mm

지난 2006년 89명으로 구성된 한국라틴아메리카연구팀이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라틴아메리카 대안사회운동과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공동연구의 최종 결과물. 이 책이 내건 목적은 세가지다. 첫째, 정치적 민주화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혼재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사회운동을 담론 적 차원에서 분석한다. 둘째, 담론의 외부에서 끊임없이 담론에 생명과 변화를 불어넣는 개별적이고 실제적인 사회운동들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넘어서는 대안세계화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것이다.

이 책은 멕시코의 대안사회운동에서 시작하여 안데스와 남미의 대안사회운동, 브라질의 대안사회운동을 차례로 살펴본다. 현재 남미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현주소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 라틴 아메리카, 미국, 세계



원제: Talons of the Eagle (2000)

피터 H. 스미스 (지은이) | 이성형 · 홍욱헌 (옮긴이)

출판사: 까치글방

출간일: 2010-08-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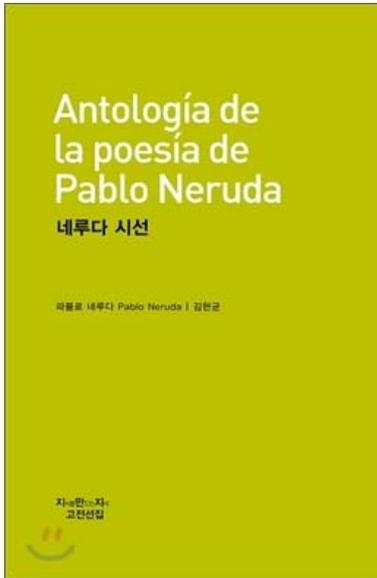
ISBN(13): 9788972914884

양장본 | 600쪽 | 148\*210mm

파나마 운하를 경계로 위쪽의 멕시코와 미국 그리고 캐나다를 북아메리카, 남쪽의 여러 나라를 남아메리카라고 칭한다. 혹은 멕시코를 비롯하여 스페인 어 사용 지역을 라틴아메리카라고 한다. 그렇지만 이들의 역사는 나눠질 수 없다. 오히려 밀접하게 얽혀 있다. 이 책은 라틴아메리카 연구의 세계적인 석학 피터 H. 스미스 교수가 라틴아메리카와 미국의 역사를 파악하여 세계사를 새롭게 보려는 시도다.

저자는 미국과 라틴아메리카의 관계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전개되었다고 밝힌다. 제국의 시대(1790~1930년대), 냉전시대(1940~1980년대), 불확실성의 10년(1990~2001), 테러와의 전쟁(2001년~) 시기에 적용되는 게임의 규칙이 각기 달랐다는 설명이다. 제국주의 시대 미국은 일방주의 노선을 견지했고, 냉전시대에는 반공주의로 키우는 과정에서 독재정부나 군사개입을 옹호했다. 냉전이 끝나고 테러 이후, 미국은 라틴아메리카에 무관심으로 일관했는데 이 과정에서 라틴아메리카는 다양한 대안 체제를 실험하기에 이른다.

## ■ 네루다 시선



파블로 네루다 (지은이) | 김현균 (옮긴이)

출판사: 지만지

출간일: 2010-06-15

ISBN(13): 9788964065488

양장본 | 270쪽 | 128\*188mm

파블로 네루다의 방대한 시세계를 대표하는 시 65편을 엄선하여 스페인 어 원전을 사용해 번역한 『네루다 시선』. 기존 번역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시집에서 뽑아낸 주옥같은 시를 다수 실었다.

전문가의 자세하고도 친절한 해설과 주석은 한 줄 한 줄 마음을 울리는 그의 시세계로 독자를 안내하는 데 모자람이 없다.

사랑의 시인, 민중시인, 전위주의시인, 자연의 시인 등 파블로 네루다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그는 특히 움직이지 않는 여행자로 불린다. 죽는 순간까지도 한 곳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했던 영원한 여행자였기 때문이다. 자연인으로서 그의 삶이 그러했듯, 그의 시는 끊임없이 여행을 떠나면서도 어김없이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되돌아와 우리 앞에 선다. 그는 쉽 없이 ‘지금-여기의 나’ 를 되묻는다. 그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물음은 이 시선집을 음미하는 우리 각자의 삶에 비추어 보아도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 ■ 먼 별



원제: Estrella distante (1996)

로베르토 볼라노 (지은이) | 권미선 (옮긴이)

출판사: 열린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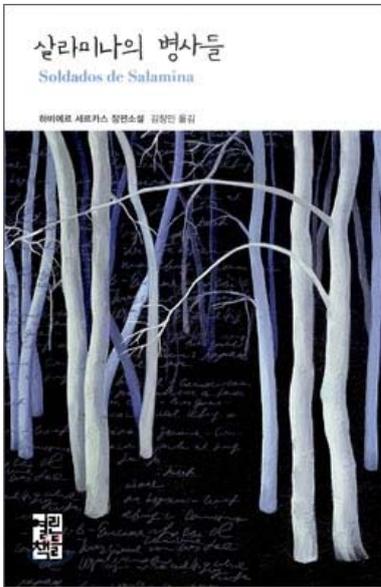
출간일: 2010-06-15

ISBN(13): 9788932910482

양장본 | 216쪽 | 128\*188mm

라틴아메리카 문학의 시한폭탄, 로베르토 볼라노의 네 번째 작품. 연기로 하늘에 시(詩)를 쓰는 비행기 조종사이자 피노체트 치하 칠레의 살인 청부업자였던 카를로스 비더와 칠레의 암울한 나날에 대한 강렬한 이야기다. 이 작품에서도 어김없이 볼라노 특유의 ‘다시 쓰기’ 전략이 사용된다. 그의 다른 작품 『아메리카의 나치 문학』(1996)의 마지막 장 「악명 높은 라미레스 호프만」에서 축약된 형태로 선보인 이야기를 볼라노의 분신과 다름없는 아르투로 벨라노를 등장시켜 확장한 것이 바로 『먼 별』이다. 『먼 별』에는 순수예술보다 정치적인 의무감을 우선시하는 시인 후안 스테인, 순수예술을 더 중시하는 카를로스 비더 등 정치와 문학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볼라노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1970년대 칠레 문학의 전반적인 상황과 칠레의 역사를 다시 쓴다. 칠레 젊은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군부독재 이야기를 하면서도, 인간의 전반적인 모습을 담담하게 묘사하는 볼라노는 라틴아메리카의 작가이면서도 라틴아메리카의 범주를 뛰어넘는 탈영토적인 작가의 면모를 보여 준다.

## ■ 살라미나의 병사들



원제: Soldados de Salamina (2001)

하비에르 세르카스 (지은이) | 김창민 (옮긴이)

출판사: 열린책들

출간일: 2010-0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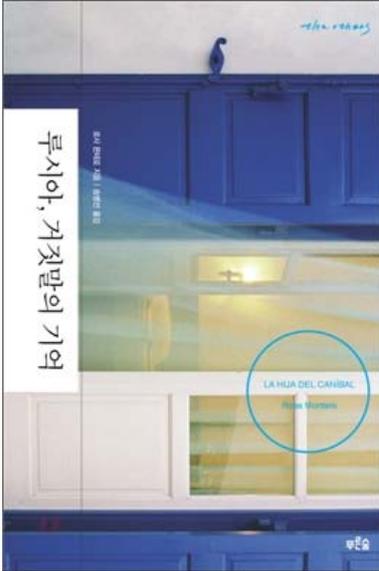
ISBN(13): 9788932911274

양장본 | 294쪽 | 128\*188mm

2009년 스페인 《라 반과르디아》지 선정 ‘2000년대 최고의 책 50권’ 5위로 선정될 만큼 스페인 문학계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는 작품. 1939년 내전 막바지 프랑스 국경 숲 속에서 벌어진 집단 총살에서 살아남은 작가이자 팔랑헤당의 핵심 멤버였던 산체스 마사스를 추적하는 탐정 소설 형식을 띤 이야기다. 신문기사를 가장하여 흥미를 유발하는 동시에 시종일관 긴장감을 놓을 수 없을 만큼 박진감이 넘친다.

이 소설의 화자는 바로 작가 하비에르 세르카스 자신이다. 조사 과정에서 산체스 마사스와 관련하여 등장하는 많은 문인과 정치인, 군인은 스페인 근대사에서 중요한 인물들로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소설은 창작 동기에서부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 소설 내용을 구성하는 과정 등 창작 과정 모두가 서술되고, 그 자체가 이 소설 작품이 되는 메타픽션의 형식을 띠고 있다. 실화라고는 하지만 마지막까지 핵심 사건의 진실은 밝히고 있지 않아 독자들에게 결말에 대한 여지를 남긴다. 공식적인 역사가 ‘망각 협정’을 통해 그 존재를 지우려 했던, 소수의 전사들, 문명을 구해 낸 무명용사들을 망각으로부터 기억 속으로 끄집어내려는 작가의 노력은 언론으로부터 극찬을 받기에 충분했다.

## ■ 루시아, 거짓말의 기억



원제: La hija del carnaval (1997)

로사 몬테로 (지은이) | 송병선 (옮긴이)

출판사: 푸른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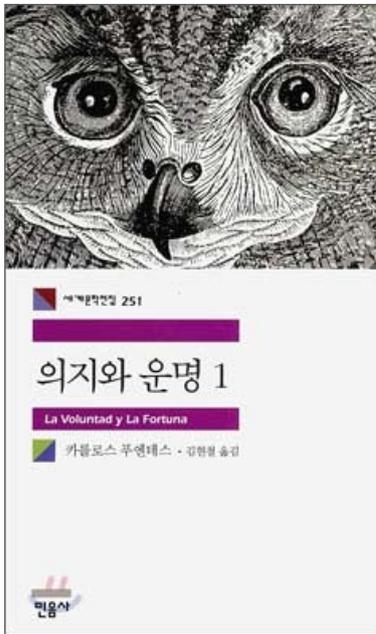
출간일: 2010-07-26

ISBN(13): 9788971848395

양장본 | 444쪽 | 153\*224mm

각기 다른 행로를 걸어 온 세 명의 남녀가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에 휘말리는 로드무비 형식의 작품. 스페인의 작가 로사 몬테로에게 Premio Príncep de Asturias 상을 비롯한 유수의 문학상을 거머쥐게 한 대표작이다. 이제 더 이상 어떤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결혼 생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열패감, 작가로서의 무능함 속에 한없이 암울하기만 한 여인이 남편의 행방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동안 외면하고 있었던 세상과 자신에 관한 진실을 정면으로 대면하는 과정을 그렸다. 남편과 함께 떠나기로 한 비엔나 여행길, 출국 전 공항 화장실에 들어간 남편이 그 길로 사라졌다. 그리고 ‘노동자의 자존심’이라는 단체로부터 도착한 한 통의 협박 편지. 사건의 베일이 벗겨질수록 남편의 실종 사건은 테러리스트가 관여된 납치 사건, 공무원 부패 스캔들로 확대되다가 마지막에 남편의 자작극으로 판명되면서 충격적인 결말로 치닫는다. 특히 액자처럼 삽입된 펠릭스의 이야기는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원칙과 거대하고 고귀한 세상의 질서가 있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삶에 던진 중요한 질문은 항상 전 생애로 대답해야 한다는 교훈을 전한다.

## ■ 의지와 운명 1, 2



원제: La voluntad y la fortuna (2008)  
 카를로스 푸엔테스 (지은이) | 김현철 (옮긴이)  
 출판사: 민음사  
 출간일: 2010-07-16  
 ISBN(13): 9788937462511  
 양장본 | 388쪽 | 132\*224mm

라틴아메리카의 대표적인 지성 카를로스 푸엔테스가 그려 낸, 20세기 멕시코 현대사를 총망라한 음모와 배신의 드라마. 멕시코의 게레로 주 연안에 굴러다니는 잘린 머리가 과거를 회상하며 자신의 일생을 고백하는 형식의 이 작품은 현실과 환상의 견고한 경계를 허물어뜨리며 작가 특유의 신화적이며 비장미 넘치는 세계를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작가는 멕시코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드러내면서 사회적 부패와 인간 본성 사이의 단단한 고리를 풀어낸다.

인류의 역사가 항상 그래왔지만 유독 잔인한 사건들이 넘쳐났던 20세기. 푸엔테스는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부끄러운 잔혹한 역사와 암울한 부조리 속에서 작가의 존재 이유를 찾는다. 그는 신시가지의 ‘유토피아’ 건물 최상층에서부터 도심 지하의 음습한 교도소까지, 피어싱을 한 젊은이들부터 군사혁명 시대의 망령까지 넘나들며 멕시코의 살벌한 도시 풍경을 그리면서 무자비한 역사와 폭력적인 사회 속에서 개인의 자유와 의지가 얼마나 하잘것없는가를 보여 준다. 이를 통해 폭력의 시대 속에서 과연 무엇이 인간이 인간이기 위한 조건인지 물으며,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한다.